

# 의학사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임상의학사서제 도입 운영

삼성서울병원 의학정보센터

조 해 민 · 김 남 진

= Abstract =

Samsung Medical Center, Medical Information & Media Center

Hye Min Cho, Nam Jin Kim

## I. 서 론

최근 급격한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도서관에서는 이용자들로부터 원하는 주제에 대해 검색을 의뢰받아 사서가 검색해 주었다. 그 시절에 사서는 단순히 온라인 검색법만 익숙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자들에게 사서의 전문성을 과시할 수 있었고 사서들도 스스로 전문가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점차 정보 환경의 변화로 이용자 직접 검색의 범위가 확대되어 이용자 스스로 원하는 주제를 검색할 수 있게 되었고 특정 주제에 대한 배경이 없는 사서들은 단순히 시스템 운영자의 역할만을 담당하게 되어 점점 사서의 전문 영역은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 되었다.

현재 널리 보급되어 가고 있는 인터넷 붐은 사서나 정보전문가 그 자체의 존재 의의를 상실시키고 있다는 우려성을 낳고 있다. 최근의 검색사서 역할들은 과거의 검색 중심에서 이용자 교육 위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사서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요즘과 같이 경영 환경이 어려워진 시기에는 전산직과 혼합 운영되어 더욱 입지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향후 사서의 역할이나 사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정동열 등은 사서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주제전문사서제 운영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전통적 목록 작성에서 벗어나 주제 분석에 업무를 집중하고 특히 인터넷에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경우 이를 선별하는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학부에서부터 문헌정보를 전공하고 실무에 투입된 사서들에게 어떻게 주제전문 사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시는 어떠한 연구에서도 나타나 있지 않다. 물론 전문도서관의 경우 사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서적을 읽고 인터넷을 탐색하면서 개인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의학정보센터와 같이 외부적으로 보면 "의학" 단일 전문도서관이지만 의학이라는 큰 학분 분야 내에는 50개도 넘는 전문분야가 있어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전문성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요즘과 같이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오지 않고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이용자와의 접촉 시간이 적어 더욱 이용자들이 현재 관심 분야, 원하는 정보의 유형

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사서들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사서 자신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기관 내에서 사서들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방안을 모색하던 중 본 기관에서는 구미 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임상의학사서(Clinical Medical Librarian)제도를 도입하여 1년간 시범 운영해 보기로 하였다. 임상의학사서제는 미국에서 70년대 초반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의학 사서 중에서도 임상 의학정보를 전문으로 봉사하는 사서 운영을 말한다. 이를 간단히 정의하면 “회진하는 의사와 의학도를 수행하고 도서관에 돌아와 해당 질병들에 관한 적합한 문헌들을 검색하여 제공하는 의학문헌전문가(Medical Literature Specialist)”이다. 또한 회진뿐 아니라 임상 의사들의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에도 참석하여 현장에서 정보요구를 취합하여 도서관에 돌아와 해당 정보를 검색하여 제공하며 LATCH(Literature Attached CHart) 서비스와 함께 효과적인 봉사를 실시한다.

본 센터에서는 미국의 임상의학사서제를 우리에게 적합하게 변형 운영하여 의료진의 연구 및 진료 분야를 직접 파악하며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 사서들이 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도 확보하여 주제전문사서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사서의 전문 영역을 확고히 하고 사서 개인의 자질도 향상하여 업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기틀을 만들어 보도록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선진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상의학사서제(Clinical Medical Librarian)의 사례를 조사하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실시한 임상의학사서제 시행 방법과 결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의학 분야 주제전문사서제의 활동 범위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 II. 선행 임상의학사서제 운영 실태 조사

### 1) 미국 임상의학사서제 운영 도입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부터 임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서 임상의학사서제의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임상 의료진이 도서관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으며 검색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시간 소요가 있었고 검색

결과와 부적절함 등으로 의료인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 무렵 사회적 여건으로는 입원 환자의 회진에 약사, 사회사업가, 영양사, 심리학자 등이 참여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특히 임상약사제도가 자극제가 되어 사서의 임상 참여 가능성이 모색되었다.

이 당시는 지금의 정보 환경과는 많이 달라 의료진이 도서관에 직접 가지 않으면 전혀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임상의학사서의 운영이 필수적이었다. 미국의 임상의학사서의 활동 목적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의사 및 기타 의료진에 적절한 임상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통한 의료의 질향상을 도모한다.
- ② 의료진의 정보마인드 및 검색기술을 증진시킨다.
- ③ 도서관 서비스와 정보원에 대한 인식 심화와 이용의 다양화를 유도한다.
- ④ 의과대학생의 의학교육 및 의료진의 계속 교육에 기여한다.
- ⑤ 분관에 있어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의료진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킨다.

⑥ Subject-Oriented Information Service에서 User-Oriented Information Service로의 개선한다.

위의 활동 목적에서 보듯이 미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 초반에 이용자 서비스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User-Oriented Information Service를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미국 임상의학사서제 활동 방법

미국 임상의학사서제의 활동 방법은 주로 의료진의 Conference 등에 참석하여 관련되는 내용을 숙지하고 도서관에 돌아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임상의학사서들 중에는 방사선 필름을 판독하거나 환자 차트를 읽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다. 여러 기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임상의학사서제의 활동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Rounding, Conference, Resident's Report, 간호사의 Daily Report 등 참여한다.
- ② 임상관련 주제의 적절한 검색결과나 원문 제공한다.
- ③ 제공한 자료의 분류 및 Filing을 한다.
- ④ LATCH(Literature ATtached to the CHart) 서비

스를 제공한다.

- ⑤ Current References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⑥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치료 정보를 제공한다.

### 3) 문헌을 통해 본 미국 임상사서제 주요 실시사례

문헌을 통해 미국 임상사서제의 주요 실시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U. of Missouri, Kansas City(1971년): 임상의학사서가 학생 교육을 위한 임상강사진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초기에는 1명의 사서가 회진에 참여하였고 일년 후 2명의 사서가 추가되었다. 주요 서비스는 LATCH, Current References, Latest Topics 였다.

(2) U. of Washington, Seattle(1973년): NICU와 OS를 대상으로 서비스 실시하였다. 한 명의 사서가 주 3회 NICU 회진에 참여하였고 다른 한 명이 주 2회 OS 회진에 참여하였다. 회진 후 당일이나 24시간 이내에 정보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진료과의 특성과 팀 리더의 성향에 의해 NICU가 OS보다 높은 만족도 보였다.

(3) McMaster U., Hamilton(1975년): 사서가 Gastroenterology Program의 일원으로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 및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다. 외래 환자의 진료 현장에도 참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이외에 1971년부터 20여년 동안 미국 내 약 23개 기관에서 실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는데 그 기관들은 Yale-New Heaven Hospital, UCLA Biomedical Library, Thomas Jefferson University 등이다.

### 4) 미국병원의 임상의학사서와의 e-mail 교환을 통한 최근 현황 조사

미국의 최근 임상의학사서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임상의학사서와 e-mail을 통해 알아보았다. 미국의 경우 임상의학사서제가 이미 정착되어 미국의 학/병원 도서관의 직원 디렉토리를 보면 담당업무가 Clinical Medical Librarian으로 되어 있는 사서들이 한 기관에 2~3명씩 있었다. 최근 Cornell과 Missouri 도서관 사서들과의 연락을 통해 알아 본 현재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Cornell Medical Library의 활동: 사서 1인이 주 단위의 Tumor Board Meeting에 참석하여 특이한

종양에 대한 문헌이나 서지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에는 매일 회진과 회의에 참석하여 MEDLINE 등을 검색하고 문헌을 review하여 선택하여 제공한다.

(2) Univ. Missouri-Kansas City School of Medicine의 활동: 임상의학사서가 매일 아침 내과부 회진에 의과대학생들과 함께 동행한 후 필요한 자료를 MEDLINE, CANCERLIT, AIDSLINE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결과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e-mail로 이용자와 간단한 질문에 대한 회신을 주고받기도 한다.

### 5) 사례를 통해 본 고려사항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임상의학사서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고려 사항이 있음을 알았다.

(1) 임상의학사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유용한 진료과와 의료진의 선택이 중요하다. 진료과의 선정은 응급상황이나 상대적으로 더 바쁜 진료과를 선택하여야 하며 의료진이 정보에 대한 요구가 많은 과를 선정하는 것이 만족도가 높다.

(2)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인 Feedback을 받아 사서와 의료진 모두가 만족할 수 있고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의료진의 임상사서 과잉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해 도서관과 정보원 이용교육을 확대하여 심화연구를 위한 정보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오늘날의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진보된 임상사서 서비스 구현이 요구된다.

## III. 삼성서울병원 임상의학사서제 운영

### 1) 팀원 구성 및 활동 방법 정립

(1) 팀원구성 및 활동기간: 임상의학사서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기 위해 1997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시범 운영하였다. 소아과 전문의 2명과 연구원 1명, 간호사 1명으로 구성된 의료진과 의학정보센터 사서 4명이 팀을 구성하였다. 의료진은 평소 의학정보센터의 이용이 활발하여 기본적인 자료 찾는법, 정보검색법 등이 능숙한 이용자 중에서 선정하였고 사서의 경우에는 의학도서관 경력 4년 이상 자로 하였다. 의료진의 경우 이용이 능숙한 이용자 중에서 선정한 이유는 능숙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의 만족도를 평가하여야 임상의학사서제의 활동 효율성이 정확히 판단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2) **활동방법:** 임상의학사서제의 활동 방법은 미국의 선행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의 환경에 적합한 방법으로 변형하였다.

먼저 본 센터의 사서들의 경우 문헌정보학 전공자들로 의학도서관 경력이 4년 이상이고 의학용어교육을 이수한 자였으나 의학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으므로 먼저 임상의학사서제 활동을 위한 기초 준비를 실시하였다. 기초준비는 의료진과의 세미나와 자체 준비 두 가지로 크게 나뉘었다.

의료진과의 세미나는 팀원으로 있는 의료진의 최근 연구 분야 및 연구 방법에 대해 4회 진행하였다. 세미나에 앞서 사서들은 의료진의 발표 논문, 현 연구분야 연구계획서 등을 읽고 세미나에 참석하였고 의료진들은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하였다. 자체 준비로는 소아과 분야의 기초 Textbook 읽기, 의학용어 공부, 소아과 분야 학술지 Review, 주요 Textbook Title 검토 등과 인터넷 상의 소아과 관련 Site 검토 등으로 약 2개월에 걸쳐 준비하였다.

기초 준비를 거쳐 4월부터 사서 2인씩 의료진의 Chart Review, 연구소 미팅, 회진 등에 팀원으로 각각 주1회씩 참석하였다. 미팅 참석 후 의료진에게 필요한 정보(정보소스 및 원문)를 제공하였고 당일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기초 자료를 보며 개별 Study를 병행하였다. 정보 제공 시에는 적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설문지를 함께 부착하여 매회 제공된 정보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매월 1회전체 팀원 미팅을 통해 진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초기에 가장 많이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사서와 의료진이 서로 상대방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었다. 이런 문제점은 공식적,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많이 해결이 되었으나 계속적인 어려움으로 남았다.

## 2) 활동 내용

### (1) 병동 Chart Review 및 회진 참석:

① 소아과 병동 의료진의 Chart Review 시간에는 1주일간 입원 환자들의 병명, 상태, 경과에 관한 보

고와 치료 방법 논의가 있으며 일주일간의 환자 중 특이 질환을 가진 환자 Case 중심의 연구 발표가 있다. 사서들은 이 시간에 참석하여 환자 정보 및 연구 발표 내용을 들으며 환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② 의료진과 소아과 병동을 직접 돌며,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임상 진단 및 치료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 ③ 정보 제공 방법:

가) 최적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지식이 필요하다. 정보검색에 앞서 가장 먼저 검색해야 할 분야의 국내 학술지를 찾아 기본 정의와 현 연구 진행 사항 등을 파악하였다.

나) **전문적인 CD-ROM Database 검색:** 가장 먼저 MEDLINE, EMBASE 등의 2차 서지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검색하였다. 가능한 한 최적의 정보를 검색하기 위하여 MeSH Subject Heading 및 Descriptor를 이용한 검색에 중점을 두었으며 1차 Review를 거쳐 적합 문헌을 선별하여 제공하였다. 또한 동일 Keyword에 대해 다양한 Database를 검색하여 누락되는 정보가 없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검색기법(제한검색, 조합검색 등)을 이용한 검색을 실행하였다.

다) **정보의 최신성 유지:** 정보의 최신성을 위해 MEDLARS Center의 Medline인 Internet Gratefull Med와 PubMed를 검색하여 CD-ROM Database의 시차를 줄였다.

라) Internet 상의 주요 Site를 검색하여 특이 질환에 대한 기초 자료 조사에 이용하였으며 최신 뉴스 Site를 통해 최근 치료법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마) Internet 상의 협회 및 유사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Site를 검색하여 환자 교육용 자료들을 검색하여 제공하였다.

바) 위의 방법을 통해 검색된 자료는 원내 메일 시스템인 SINGLE 전송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였으며 원문 복사자료는 자동 전송시스템인 오토트랙을 통해 전송하였다.

④ 8개월간 총 참석 횟수 및 문헌제공 건수;

총참석횟수	정보제공건수	1회평균 정보제공건수	비고
27회	86건	3.2건	정보 한건에는 검색결과와 원문이 포함됨

(2) 연구소 임상유전학 연구 팀원으로 참석:

① 사서가 주 1회 임상유전학연구실의 Lab Meeting에 참석, 연구의 진행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② 정보제공방법;

가) 특정 분야의 최근 연구 동향, 유전자의 Sequence 및 Map 정보, 유전자 치료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나) 유전학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NIH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산하 NCBI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입수 제공하였고 유전자의 Sequence 등은 GeneBank를 검색하여 제공하였다.

다) 또한 유전질환에 관한 연구동향, 관련 참고문헌, 유전자 Sequence, Map 등의 총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OMIM (Online Mendelian Inheritance in Man)을 통해 유전질환 관련 자료를 검색하여 제공하였다.

라) 그리고 유전자의 Map 검색 및 최근 연구 동향 등을 알기 위해서 Human Genome Project를 수행하는 기관의 Web Site를 검색하였는데 대표적인 기관이 미국의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이다. 그리고 이 Site 내의 "Human Genome Most Used Link"를 통해 유전학 분야의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제공하였다.

③ 8개월간 총 참석 횟수 및 문헌제공 건수;

총참석횟수	정보제공건수	1회평균 정보제공건수	비고
20회	70건	3.5건	정보 한건에는 검색결과와 원문이 포함됨

(3) 활동 결과: 약 8개월간의 임상의학사서제 활동 결과는 의료진 및 사서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의료진의 경우 이용자 중 정보 이용에 능숙한 이용자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들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별히 의료진이 스스로 하기에 불가능하였던 부분의 정보를 제공해 준 경우 만족도가 높았다. 물론 본 센터의 검색실에서는 이용자들의 검색 의뢰 시 검색을 대행 제공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사서들과 접하는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무엇을 의뢰해야 하는지"에 대해 몰라 의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사서들의 경우에도 막연히 혼자 공부하고 인터넷상의 정보를 찾아 정리하던 것에 비해 의료진과의 계속적, 정기적 접촉을 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학 지식의 향상 및 정보 요구 형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사서의 업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설문지를 통한 적합도의 조사에서는 초기에 비하여 적합률이 많이 향상되었고 사서의 업무 시간도 감소하였다. 각각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정보의 적합도;

1) 사서들이 제공한 정보에 대한 적합도를 Feedback 받아 다음 정보 제공에 기준을 삼음으로써 점차 향상된 정보 서비스를 유도하였다.

2) 사서들이 제공한 정보를 통해 의료진은 정보 수집에 대한 간접교육 효과를 가지게 되며 이로써 원하는 정보에 대한 정확한 요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3) 의료진 및 사서 상호 간의 이해도를 높혀 점차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다.

4) 적합도 평가결과

구분	소아과 진료부분		연구소 진료부분		총계	
	제공건수	만족도	제공건수	만족도	제공건수	만족도
초기 (5~6월)	36건	73%	26건	64%	62건	69%
중기 (7~8월)	25건	85%	20건	82%	45건	84%
말기 (9~11월)	25건	96%	24건	93%	49건	95%

② 사서 측면;

1) 사서가 Chart Review와 병동 회진, Lab Meeting 등에 계속적으로 참석함으로써 의학적인 지식의 향상을 가져왔고 별도의 설명 없이도 Keyword 및 관련 부분에 대한 숙지가 이루어졌으며 현장에서의 질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어 불필요한 사후 과정이 사라지게 되었다.

2) 의료진의 정보 요구 형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다른 의료진의 정보 요구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3) 임상사서의 QA활동 초기에 제공된 정보의 적합도가 69%에 비하여 QA활동 말기에는 95%로 향상되어 의료진의 만족도는 향상되었으며 반면에 사서들의 서비스 시간은 감소하여 사서들의 업무 능력이 현저히 향상됨을 알 수 있다.

구분	의료진의 자료입수 비율 (전체연구시간대비)
활동 이전	40%
활동 초기(5~6월)	35%
활동 중기(7~8월)	20%
활동 말기(9~11월)	15%

4) 종합적으로 QA 활동을 통해 사서들은  
 - 의료진의 정보에 대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 의학 분야의 지식을 넓히고  
 -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으로의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의학전문 주제사서로 양성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③ 의료진 측면; 의료진의 순수 연구 및 진료시간 확보: QA 팀원들의 평균 정보 수집 시간은 전체 연구시간의 40% 정도였다. 이 시간을 사서들이 60% 이상 담당해 줌으로써 전체 연구시간의 10~15% 정

구분	정보제공 1건 당 소요시간
초기(5~6월)	4.5시간
중기(7~8월)	2.4시간
말기(9~11월)	0.5시간

도만을 정보 수집 부분에 할애하게 되었고 이로써 순수 연구 시간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한 지금까지 의료진이 스스로 하기에는 불가능 하였던 부분의 정보 입수를 팀을 이루어 사서들이 담당해 줌으로써 양질의 다양한 정보 신속하게 입수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꼭 필요한 부분의 자료만을 입수하여 연구하였으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음으로써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연구 및 진료에 임하게 되었다.

IV. 결 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의학 주제 전문사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시범 실시한 임상의학사서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1997년 2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사서들이 시범적으로 의료진의 연구 및 진료 활동에 주1회 직접 팀원으로 참여하여 의료진에게 필요한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였다. 의료진들은 계속적으로 양질의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연구 및 진료의 질 향상을 이루게 되었으며 사서들은 의료진의 정보에 대한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학 분야의 지식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으며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앞으로의 시대에 꼭 필요로 하는 의학전문 주제사서로 양성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활동 과정 초기에는 상호 간의 요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부족 및 사서들의 의학지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의료진과 사서들이 한 팀이 되어 상호 간의 부족함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임상의학사서제는 이용자가 사서가 한 팀이 되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게 됨으로써 자연스러운 교육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이용자에게 사서의 전문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향후 의학사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임상의학사서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각 의학 전문 주제별로 임상의학사서를 양성한다.  
 의학분야는 상당히 다양한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으므로 어떤 한 사서가 모든 분야 의학 정보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학부에서부터 문헌정보학을 전공하는 사서들은 의학 전문 분야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 주제 분야별로 의학 전문 사서(암분야 전문사서, 유전학 분야 전문사서 등)를 양성하여 좀 더 효과적인 임상의학사서제도를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2) 따라서 도서관의 경력 사서들에게 전문 주제를 배정하고 담당 의료진과 한팀을 이루어 그 분야의 의학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적으로 해당 분야의 정보 Source를 조사하여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3) 이를 위해 초기 1년 정도는 사서들이 주1일 정도는 병동 및 진료실, 연구실에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이와 별도로 사서들은 각자의 분야에 대한 최근 연구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자료를 Review하여 전문 지식을 쌓아나가야 한다.

4) 각 의학도서관의 임상의학사서들은 월1회 정기 모임을 가지고 상호 정보를 교환하여 더욱 전문적인 임상의학사서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차원의 자격증 등을 신설하여 좀더 적

극적으로 사서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한다.

## 참 고 문 헌

- 1) 김용근. 전문도서관 정보봉사의 현단계. 도서관학논집 1997; 26: 205-234.
- 2) 박인용. 한국 사서직의 전문직화 연구. 도서관학논집 1996; 25: 207-222.
- 3) 손정표. 21세기 대학도서관과 사서의 전문성에 관한 고찰. 도서관문화 1996; 37(5): 288-300.
- 4) 윤영대. 21세기를 대비한 의학도서관의 과제. 한국의학도서관 1997; 24(1): 11-14.
- 5) 윤회윤. 도서관의 미래상에 대한 담론 및 쟁점의 분석과 형상화. 도서관학논집 1997; 27: 61-95.
- 6) Demas JM, Ludwig LT. Clinical medical librarian: the last unicorn? Bull Med Libr Assoc 1991; 79(1): 17-27.
- 7) Miller N. Effects of cost sharing and end-user searching on a clinical medical librarian program. Bull Med Libr Assoc 1989; 77(1): 71-72.
- 8) Veenstra RJ. Clinical medical librarian impact on patient care: a one-year analysis. Bull Med Libr Assoc 1992; 80(1): 19-22.
- 9) Veenstra RJ, Gluck EH. A clinical librarian program in the intensive care unit. Crit Care Med 1992; 20(7): 1038-1042.